

반딧불이 최적 탐사장소 찾는다

무주군, 제26회 무주반딧불축제 앞두고 신비탐사 실태조사 진행

무주군은 오는 27일 개막되는 제26회 무주반딧불축제를 앞두고 반딧불이 신비탐사를 위한 실태조사를 오는 8일부터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딧불이 신비탐사는 셔플버스를 이용해 탐사지역으로 이동해 반딧불이 비행과 군무를 직접 체험하는 생태 프로그램이다. 탐사장소는 야간 실태조사 결과 최적의 탐사장소를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반딧불이 신비탐사 모습

이에 제26회 반딧불축제를 앞두고 방문객들로 부터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인기 프로그램'으로 신비탐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신비탐사에 참여할 희망자는 오는 8일부터 매진때까지 반딧불축제홈페이지(www.firefly.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신청(현장접수 미 실시)해야 하며, 체험비는 1인당 1만5천 원, 36개월 미만은 무료다. 탐사객들에게 5천원 권 무주사랑상품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반딧불이 신비탐사는 축제기간 동안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국민체육센터 인근 축제 전용주차장에서 주말에 30대, 평일엔 10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반딧불축제가 진행되는 8월 말에서 9월 초는 늦반딧불이가 주로 활동을 하는 시기다.

늦반딧불이는 5~6월에 활동을 하는 애반딧불이와 문문산반딧불이에 비해 개체 크기가 월등하게 크고 발광력도 좋아 신비탐사에 안성맞춤이라는 평가다.

무주군청 기술연구과 반딧불이팀 정재훈 팀장은 "환경지표곤충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무주 일원의 반딧불

이와 그 먹이 서식지'와 다발생지역에 대한 반딧불이 출현 실태조사를 통하여 최적의 탐사장소 제공으로 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더불어 반딧불이 연구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군은 안전한 탐사환경 제공을 위해 탐사로 평탄작업과 예초작업, 낙상 방지를 위한 안전띠 설치, 뱀 출몰에 대비한 뱀퇴치기 설치 등 축제 준비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고원 산골음식 실용화 컨설팅 제안서 평가·착수

진안군이 음식관광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 7월 22일 진안군 산악초터에서 '진안고원 산골음식 실용화 컨설팅' 제안서 평가를 갖고 (주)이지스엔터프라이즈(대표 송영재)를 용역 수행업체로 최종 선정했다.

진안고원의 대표맛집을 육성할 우수한 전문업체 선정을 위해 음식, 관광, 유통 분야의 전문가 등 총 7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은 "컨설팅을 통해 개발된 메뉴는 소비자의 평가로 철저히 검증해야 하며, 진안의 농·특산물을 적절히 활용에 상품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업체 선정에 심혈을 기울였다.

앞으로 (주)이지스엔터프라이즈는 컨설팅 참여 희망 업소 6개소와 함께 진안고원 산골음식 브랜드 '산골에찬'의 활성화 방향성 제시, 기존메뉴 보완 및 신메뉴 지원 등을 진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희망 업소·용역업체와 진안고원 특색에 맞는 재료와 이미지를 형상화한 대중성 있는 메뉴를 보급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진안군 음식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정책간담회

최훈식 장수군수, 시장상인회 애로사항 청취·방안 모색

최훈식 장수군수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수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일 장수시장상인회 회의실에서 상인들과 함께 정책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수시장상인회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최 군수는 간담회에서 장수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함께 모색했다.

조방희 장수시장 상인회장은 "최근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으로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감소하고 있어 상인들이 가게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시장 활성화 방안 및 상인들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시장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장수시장상인회원들에게 항상 감사하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청취한 장수시장 상인들의 고충에 대해 들은 만큼 군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와 상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은 3일 용산역 4층 ITX-3회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해 김국철 용산역장, 양축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산역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무주군-코레일 용산역 '맞손'

지역관광·농·특산물 홍보·철도이용 활성화 협력

무주군이 코레일 용산역과 무주군 관광활성화 추진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무주군은 3일 용산역 4층 ITX-3회의실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해 김국철 용산역장, 양축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산역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지역관광과 농·특산물 홍보, 철도이용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용산역은 무주군 농·특산물과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고, 특히 무주반딧불축제 등 문화축제, 관광자원을 활용한 기차 여행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운영키로 했다.

또한 군은 용산역에서 운영하는 기차 여행 상품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철도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황인홍 군수는 "무주군 구천동33경, 덕유산, 태권도원 등 무주군이 보유하고 있는 관광명소와 머루와인, 활육수 등 맞춤형 건강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코레일 용산역과 업무협약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용산역과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코레일을 통한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지적민원업무 현장사무소 운영 '호응'

무주군이 지적 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인들에게 균형 방문의 번거로움을 해소시키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사무소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군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산면 삼유리 하유지구(371필지, 206,384㎡) 및 과목리 과목지구(839필지, 463,394㎡)의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현장사무소를 지난달 21일부터 22일, 27일부터 29일 각각 운영했다.

이번 현장사무소 운영은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토지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토지소유자가 군청까지 방문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설정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운영했다.

특히 현장사무소에서는 지적도의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 중인 현실경계를

드론 항공영상(3차원)에 중첩한 도면을 활용하여 정확한 경계선명과 원활한 협의를 이끌어 냈으며, 협의를 통해 면적 증감 발생 시 감정평가에 의한 조정금 발생을 안내했다.

이번 1일부터 31일까지 군은 현장사무소 운영 기간에 참석하지 못한 토지소유자에 대해 직접 찾아가는 경계 협의 추진할 계획이며, 현장 방문이 어려운 토지소유자는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협의하면 된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최찬호 팀장은 "이번 경계협의 과정으로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등 의견을 수렴해 경계를 설정할 계획이다"라며 재조사사업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을지연습 대비 사전 교육 실시

진안군은 2~3일까지 2일간 군청 강당에서 '2022년 을지연습'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전 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했다.

을지연습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을 가정해 정부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기 위한 목적의 국가 비상대비 훈련으로 올해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간 정식으로 실시한다.

군은 안보위협에 대응한 범정부적인 모의 실전 훈련인 만큼 철저한 준비를 위해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했다.

특히 집합 교육과 더불어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 및 휴가 등으로 집합 교육이 어려운 실과 및 읍·면을 대상으로는 자체 교육도 병행해 전 직원이 사전교육에 참여하도록 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장수군, 을지연습 대비 사전 교육 실시

장수군은 '2022년 을지연습'을 앞두고 3일 장수군청 군민회관에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2년 을지연습 대비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을지연습은 국지도발을 비롯한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비해 실전과 같은 연습으로 완벽한 국가비상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훈련으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주요 민간업체들이 매년 연습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대내외 여건 등으로 축소됐던 을지연습이 올해 이전 수준으로 강화됨에 따라 참가 대상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비상사태 대응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올해 을지연습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되며, 강화된 국가위기관리 및 총력적인 대응역량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데 목표를 두고 실시한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최근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이 우리나라도 아직 전쟁의 위협이 존재하는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로 완벽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